

나, 얼마나 알고 있지?

1.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.

- (1) 최소의 의미 단위이다.
- (2) 더 쪼개면 자립성이 사라진다.
- (3) 조사는 자립성이 없으므로 단어가 아니다.
- (4) ‘빵집’은 쪼개어도 자립성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단어가 아니다.

다음은 형태소에 대한 설명이다. 맞으면 O, 틀리면 X를 고르시오.

- 2. 형태소는 더 쪼개면 의미가 사라진다. (O / X)
- 3.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실질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뉜다. (O / X)
- 4. 동사의 어간은 어휘 형태소이자 자립 형태소이다. (O / X)
- 5. 모든 형태소는 여러 다른 형태소와 결합할 수 있다. (O / X)
- 6. 조사, 접사, 어미는 문법 형태소이다. (O / X)
- 7. 자립 형태소 하나만으로도 문장을 만들 수 있다. (O / X)

8. 다음 문장에서 단어는 모두 몇 개인가?

자꾸 눈이 가네, 하얀 그 얼굴에. - 아이유 <복숭아>

- (1) 6 개
- (2) 7 개
- (3) 8 개
- (4) 9 개

9. 다음 문장에서 형태소는 모두 몇 개인가?

내가 만든 쿠키, 너를 위해 구웠지. - 뉴진스 <Cookie>

- (1) 10 개
- (2) 13 개
- (3) 6 개
- (4) 7 개

10. 밑줄 친 형태소 중 특징이 다른 형태소 하나를 고르시오.

- (1) 아름다운 선율
- (2) 넌 참 착하구나!
- (3) 추워서 덜덜 떨었어.
- (4) 개가 느닷없이 찾아왔었어.

11. 밑줄 친 형태소의 특징에 대해 잘못 설명한 사람은 누구인가?

지금 뭐 해요?

- (1) 서현: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.
- (2) 태연: 단어라서 자립 형태소야.
- (3) 유리: 실질 형태소에 붙을 수 있어.
- (4) 티파니: 어미도 이것과 같은 특징이 있어.

12. 밑줄 친 각 형태소의 특징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을 고르시오.

시계 소리에 눈을 뜨면 새롭지만 같은 하루 - 샤이니 <초록비>

- (1) (2) (3) (4) (5)

(1) 실질, 자립

(2) 실질, 의존

(3) 실질, 의존

(4) 실질, 의존

(5) 형식, 자립

13. 다음 문장을 단어를 기준으로 적절하게 나눈 사람은 누구인가?

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. - 이문세 <사랑이 지나가면>

(1) 태형: 그/사람/나/를/보아도/나/는/그/사람/을/몰라/요.

(2) 지민: 그/사람/나/를/보아/도/나/는/그/사람/을/몰라/요.

(3) 남준: 그/사람/나를/보아도/나/는/그/사람/을/몰라/요.

(4) 윤기: 그/사람/나/를/보아도/나/는/그/사람/을/몰라/요.

14. 다음 문장에서 형식 형태소는 모두 몇 개인가?

노을이 젖어드는 둥근 섬마을 - 계훈복 <섬마을>

(1) 3 개

(2) 4 개

(3) 5 개

(4) 6 개

15. 다음 가사에서 실질 형태소이자 의존형태소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?

길이 있기만을 바라며 두 손으로 훔쳐낸 눈물 - 어반자카파 <코끝에 겨울>

(1) 1 개

(2) 2 개

(3) 3 개

(4) 4 개

16. 다음 가사에 나타나는 자립 형태소의 개수와 형식 형태소의 개수를 모두 더하면?

더 고운 글씨로 사랑을 만드는 길 - 박정현 <편지할게요>

(1) 5 개

(2) 6 개

(3) 7 개

(4) 8 개

17. 아래 문장을 형태소로 가장 잘 나눈 사람은 누구인가?

할머니께서 자주 해 주셨던 소고기뭇국이 그리워.

(1) 로제: 할머니/께서/자주/해/주-/시-/었-/던/소고기/뭇국/이/그립-/어

(2) 지수: 할머니/께서/자주/하-/여/주셨-/던/소고기/무/국/이/그립-/어

(3) 제니: 할머니/께서/자주/하-/여/주-/시-/었-/던/소고기/무/국/이/

그리워

(4) 리사: 할머니/께서/자주/하-/여/주-/시-/었-/던/소고기/무/국/이/

그립-/어

